

## 자치구경제이슈

### ■ 「서울디지털산업단지」 특화발전 전략

정경호(금천구청 생활복지국장)

## 「서울디지털산업단지」 특화발전 전략

정경효

금천구청 생활복지국장

jheong9235@yahoo.co.kr

### 추진배경 및 목적

#### ○ 추진배경

-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어 1980년대까지 국가 수출실적의 12%를 차지하는 수출의 전진기지로 우리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음
-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 첨단제조업으로의 개편, 주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등 제반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산업단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되고 있음
- 금천구는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상업지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.3%에 불과한 반면 디지털산업 2·3단지를 포함한 준공업지역은 35.0%나 되어 효율적인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디지털산업단지와 금천구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
- 입주업체가 5,000개가 넘지만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상 제약요인이 많아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

○ 추진목적

- 현재 디지털산업단지가 지니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,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발전전략을 수립,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금천구발전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황 및 경쟁력

○ 현황

-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총면적은 1,983,470㎡(약60만평)로 2·3단지는 금천구, 1단지는 구로구 관할이며, 금천구에 속한 면적이 77.2%를 점유함
- 구역별 면적을 보면 산업시설구역이 약 75%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은 각각 16.8%, 7.5%이며, 녹지구역은 없음

○ 경쟁력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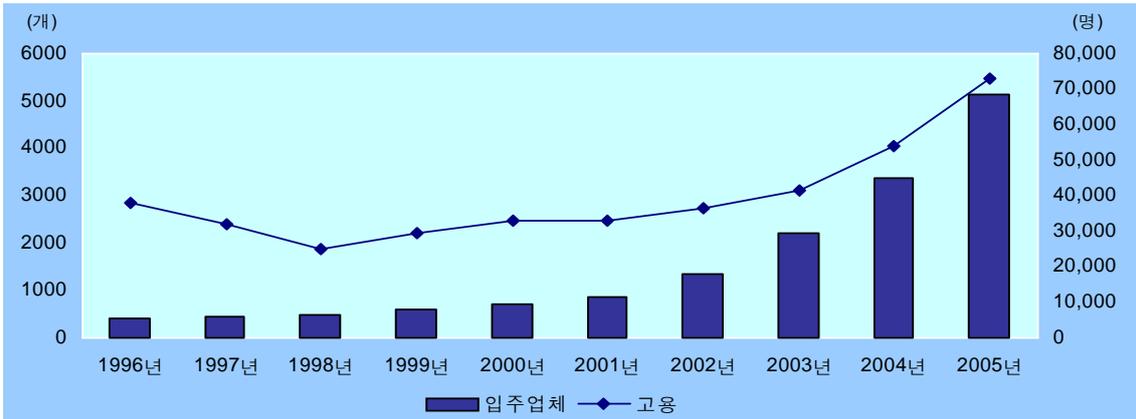
- 입주업체는 <그림 1>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50%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냄

<표 1>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현황

(단위 : m<sup>2</sup>/%)

구 분	총 면 적	산업시설구역	공공시설구역	지원시설구역	녹지구역
계	1,983,470 (100.0)	1,500,826 (75.7)	333,883 (16.8)	148,761 (7.5)	-
1단지	452,893 (100.0)	350,413 (77.4)	36,364 (8.0)	66,116 (14.6)	-
2단지	396,695 (100.0)	284,298 (71.7)	92,562 (23.3)	19,835 (5.0)	-
3단지	1,133,882 (100.0)	866,115 (76.4)	204,957 (18.1)	62,810 (5.5)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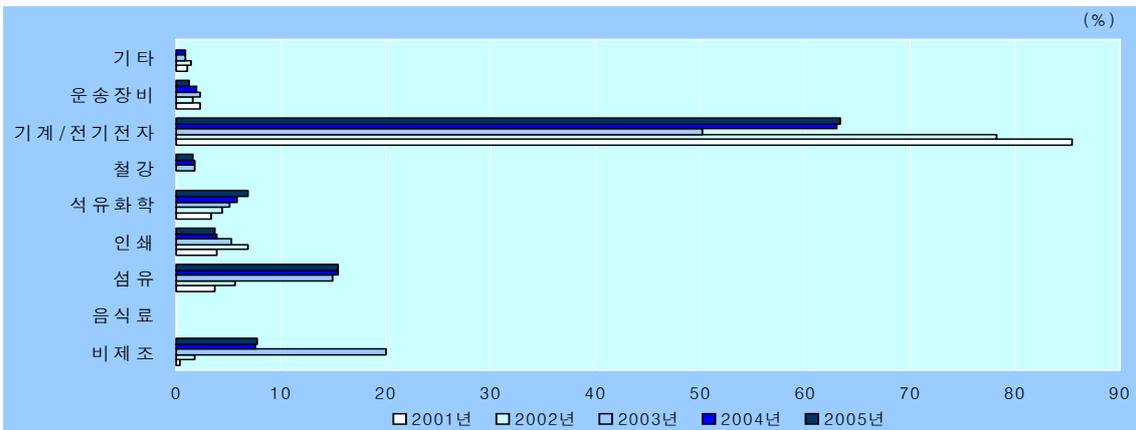
자료: 산·학·연 통합정보망 e-cluster



자료: 산·학·연 통합정보망 e-cluster

<그림 1> 입주업체 및 고용현황

- 고용은 1990년대 말까지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에 따라 감소하다가 1999년부터 아파트형공장 준공에 따른 입주업체의 급증에 따라 증가추세로 반전됨
- 생산액은 아파트형공장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1999년에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, 최근에도 15~20%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
- 생산업종은 첨단산업인 기계/전기전자부문이 63.3% 이상을 차지하고, 2단지 중심의 섬유(패션디자인)산업이 15.4%로 계속 증가추세임
- 수출액은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2.3%까지 차지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여 2003년에는 1.04%로 그 비중이 축소됨



자료: 산·학·연 통합정보망 e-cluster

<그림 2> 생산업체 업종 비중

○ 기반시설 및 기타

- 1단지와 2·3단지간 남부순환로가 통과하고, 2·3단지는 경부선 철도에 의해 분리 되어 있으며 공단로를 제외하고는 각 단지간 연결도로망이 부족함
- <표 1>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지공간이 전혀 없어 근로환경이 열악하고, 주변 도시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생활환경이 날로 악화하고 있음
- 최근 첨단 IT산업과 아파트형공장 붐에 힘입어 내수 업종으로 변화되었음

**단지별 특성 분석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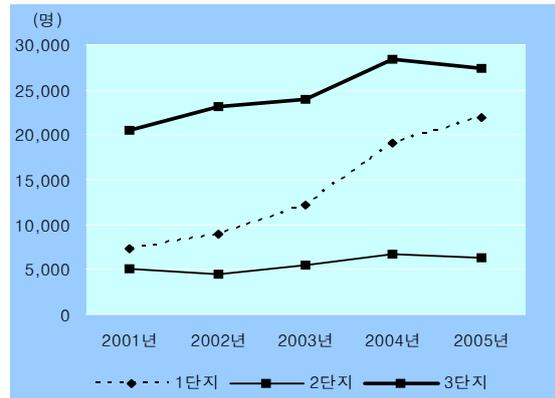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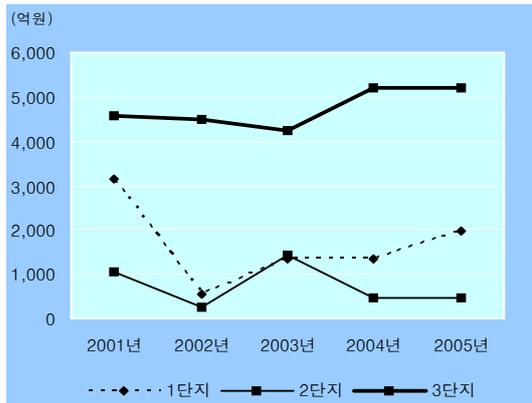
○ 생산업체 및 업종·고용자 추이

- 단지내 전체 사업체 수는 2001~2005년간 약 4배정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, 1단지와 3단지의 사업체 수는 빠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2단지는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음
- 2단지의 생산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섬유·의류 등의 생산기능이 판매기능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임
- 업종별 생산액비중은 1·3단지는 기계 및 전기전자부문의 비중이 가장 높고, 2단지의 경우 섬유부문이 타단지에 비해 10%p 이상 높게 나타남
- 고용자 수는 단지 전체로는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패션매장이 집중된 2단지의 경우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

○ 토지 이용실태

- 2단지와 3단지는 지원시설 구획면적이 5% 정도에 불과하여 구로구에 위치한 1단지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임(<표 1> 참조)
- 전체적으로 지원시설구역<sup>1)</sup>이 매우 협소하여 금천구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산업단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제약을 받고 있음

1)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(산업자원부)에서 정하며, 주거·금융·의료·판매·교육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시설 용도구역을 가리킴



자료: 산·학·연 통합정보망 e-cluster

<그림 3> 단지별 생산액추이

<그림 4> 단지별 고용자추이

## 대내외 환경변화 종합분석

### ○ 산업단지를 둘러싼 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구조고도화

- 기존의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공간의 역할을 지향했으며 기초소재형 산업 중심의 공장이 주류를 이루었음
- 최근에는 생산활동과 생활공간이 다양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소와 같은 R&D기능 중심, 단지별 변화된 특성을 고려한 특화육성전략이 부족한 실정임
- 생산체제는 IT중심의 첨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체계, 그리고 물리적 환경, 생활여건 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
- 그러나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입지적 장점, 관련산업의 집적, 각종 산업 지원시설에 대한 뛰어난 접근성 등을 충분히 활용한 ‘산업단지 구조고도화’ 사업의 조기추진을 통해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
### ○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한 재검토

- 디지털산업 2·3단지가 금천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면적 11.7%, 제조업 총 생산액 97.5%, 사업체수 84.2%를 점유하고 있는 바 산업단지 발전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

- 2005년 4월, 산업단지 소재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장 내 고용자 주소지를 조사한 결과 금천구 주민의 비율이 6.1%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남
- 국가산업단지로서 여러 제약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권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이 곤란함

○ 단지별 특화발전전략의 필요성 증가

- 2단지 패션타운 일대는 원래 의류섬유제조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IMF 이후 경영난 극복을 위해 의류판매장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현재는 의류제조와 판매가 동일 지역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물류비 절감으로 판매경쟁력 확보에 성공함
- 그러나 점차 생산기능은 축소되고 판매기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고용자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, 일반 상업지역화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라는 명칭이 무색해진 상태임
- 따라서 2단지는 「패션디자인」, 첨단 아파트형 공장<sup>2)</sup>이 많이 들어선 3단지는 「지식 기반 제조업지원지구<sup>3)</sup>」로 특화 육성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특화 발전 전략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

##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특화발전전략

### 1.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와 단지별 특화발전 추진

○ 구조고도화<sup>4)</sup>는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

- 낙후된 금천구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도시기능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
- 주변지역과의 연계교통망 확충, 연구 및 지원센터, 디지털박물관, 대학원, 공원녹지 공간 확보 등 최적의 물리적 환경을 갖춘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함

2)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은 총 73개(준공 43개)이며 이중에서 3단지에 45개가 집중되어 있음

3) 「서울 산업집적지간 네트워크 구상계획 및 서울 4대산업벨트 특화개발계획」에 의해 서남 첨단산업벨트로 지정되어 제조형 IT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한 디지털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예정임

4)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공영개발 및 직접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17,550백만원임(산업자원부, 산업연구원)



<그림 5> 구조고도화 기능배치 및 계획안

○ 단지별 특화발전전략

- 단지별 특성화를 통한 전략적 경쟁우위 창출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단지로 육성함
- 패션매장이 집중된 2단지는 단순 판매중심에서 탈피하여 전문 연구지원센터와 관련 대학, 연구소를 갖춘 「의류패션산업 지원 서비스지구」로, 근래에 첨단 아파트형공장이 급증한 3단지는 「지식기반제조업 지원 R&D, 생산복합지구」로 특화 발전을 추진함 (<그림 5> 참조)

○ 개발사업의 시행효과

- 약 4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 9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며, 특히 금천구 지역에는 약 2조 1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8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2. 금천패션타운의 활성화

○ 디지털2단지사거리 주변이 서울의 최대 패션타운으로 부상 중

- 디지털2단지 사거리(금천구 가산동 60번지) 일대에는 패션의류매장 32개소(입주업체 677개)가 집결되어 있음



<그림 6> 패션타운 상징문



<그림 7> 금천패션타운

- 패션의류매장의 매출액<sup>5)</sup>은 해마다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고, 일평균 35,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쇼핑객이 운집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패션타운으로 부상하고 있음

○ 금천구는 디지털2단지 일대를 서울의 패션디자인 명소로 육성 추진

- 패션매장이 밀집된 디지털단지 오거리에서 수출의 다리 입구까지(동서간, 292m)와 SG Wicus에서 진도까지(남·북간, 648m) 총 940m 구간을 ‘금천 패션로테오 거리’로 2004년 7월 22일 지정하였음
- 유명백화점 못지않은 서비스와 쇼핑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영업관리 및 고객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금천패션타운 인터넷쇼핑 및 홍보용 홈페이지를 2006년 6월 개설(<http://fashiontown.geumcheon.go.kr>)
- 패션타운 쇼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패션타운을 홍보하는 상징조형물(잉벌노문), 할인매장안내도, 상세위치도, 홍보게시판 등을 제작·설치하였음
- 백화점과 할인점의 장점을 결합시킨 아울렛이라는 기존의 컨셉트는 유지하면서 고급 브랜드를 늘리고 편의시설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중임

○ 패션의류매장 집단화사업<sup>6)</sup> 추진

-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관계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션매장의 판매 경쟁력제고를 위해 2007년 2월까지 대형패션몰을 건립하여 판매장을 집단화할 예정임

5) 패션타운 매출액은 2005년 기준 6,000억원에 이르며 매년 30% 정도의 높은 신장율을 기록하고 있음

6) 2·3단지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판매장(약 15개소)을 대형 쇼핑건물로 집단화하고자 MOU방식으로 추진함

### 3. 고용확대시책 적극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

#### ○ 지역주민 고용확대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

-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활발히 창업되고 가동되어야하며 지역주민의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함
- 현재 6% 대에 불과한 지역주민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우선 지원, 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, 취업박람회 개최,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30% 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

## 향후 추진과제 및 전망

#### ○ 금천구 전략산업인 패션산업 육성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

- 패션의류매장이 의류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던 아파트형 공장 체제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면적 제한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<sup>7)</sup>이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중임
  - 기업지원시설 규모 확대를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지원시설면적을 현행 20%에서 40%로 확대함
  - 산업단지 내 판매장에서 타사제품 판매가 불가능하여 종합판매장 건립이 불가능한 현재 규정을 타사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함
  -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에 무역·유통·기업체 본사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

#### ○ 지역특화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 해제 또는 관리권 이양

- 산업단지 조성은 건설교통부, 입주계약 체결 등 관리업무는 산업자원부(산업단지공단), 도로·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<sup>8)</sup>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체계적인 관리와 발전대책 마련이 어려움

7)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

8) 금천구는 지난 6년간 관할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비로 390억원(연평균 65억원)을 투입하였음

- 국가산업단지로서의 기능과 주변여건이 크게 변화한 만큼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수립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
-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모한 2단지는 국가산업단지에서 해제<sup>9)</sup>, 그리고 3단지는 지자체로 관리권 이양<sup>10)</sup>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○ 지자체·중앙정부의 긴밀한 협력으로 구조고도화사업 조기 완료

- 사업주체, 추진방식 등 세부시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2015년 사업완료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(산업자원부·건설교통부)와 지자체(서울시·금천구)간에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함

## 기대효과

○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실리콘밸리로서의 위상 재정립

-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이며 수도권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핵심지역임
-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IT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및 생산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식기반산업 ‘혁신 클러스터’로 육성하고 단지별 특성화를 통한 전략적 경쟁우위창출로 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함

○ 금천패션타운 특화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- 2단지 패션디자인 산업 육성과 관련한 구조고도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함
-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면적의 확충 및 타사제품 판매허용 등 관련 규제가 개정되면 금천패션타운은 서울의 대표적인 패션명소로 발전할 것임

9)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10) 서울특별시에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방산업단지로 전환방침을 결정(2005.2.18)하고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에 관리권 이양을 건의하였음 (2005.2.24/2006.8.11)

## 참고문헌

- 금천구, 2006, 구정주요업무계획
- 산업연구원, 2006,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기본계획
- 서울시, 2006, 2020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
- 산업단지공단, 2005,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
- 금천구, 2004,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효율적인 발전방안